與 지도부 공중분해 혼돈…野 주도권 잡기 ‘수싸움’

여소야대 정국 어디로

새누리 비대위 구성 조기 전대…친박·비박 당권 격돌 전망

더민주 야권 재통합 추진, 국민의당 개혁적 보수 규합 가능성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과 3당 체제가 형성되면서 정치권에는 총선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된 것은 2000년 16대 총선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은 과반을 얻지 못한 것은 물론 133석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도 밀려 115석의 원내 2당 지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또 국민의당이 창당 과정에 현역의원이 합류해 교섭단체를 꾸리긴 했지만 3개 교섭단체 체제가 실질적으로 가동될 계기를 마련한 것은 2008년 18대 국회 때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이래 8년 만의 일이다.

◇여당=제1당 지위까지 빼앗긴 새누리당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혼돈 속으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잇따라 사퇴의사를 표명, 지도부 공백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수순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이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총선 참패 대책을 논의했다.

당 지도부는 비대위를 구성,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로써 당 내부에선 친박(親朴)계와 비박(非朴)계가 치열한 당권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야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복잡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당이 의석수에서는 더민주에 크게 뒤지지만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둠에 따라 대선을 향한 호남민심을 놓고 두 야당 간 한 차원 높은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호남 의석이 없으면 존립 근거가 희박한 상황이고 더민주 역시 호남 없는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 대선이 다가올수록 여야 일대일 경쟁구도를 만들기 위한 야권 통합론이 또다시 불거질 개연성이 크고, 호남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세력이 정계개편 논의의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더민주는 ‘맏형론’을 내세워 국민의당과 재통합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통해 집토끼를 확실히 지킨 다음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대를 이뤄야 한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당내 이견이 크지 않다.

반면 국민의당 내부는 복잡하다. 제 3정당론을 주창해온 안철수 공동대표는 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취할 것이지만 당내 최대 세력인 호남의원 중에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선 전에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때문에 안 대표 측에서는 벌써 연합정부나 연립정부를 통합의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호남의 확고한 지지세를 이어간다면 오히려 안 대표가 공격적으로 더민주를 포함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규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 시나리오가 진행될 경우, 분당의 주요 원인인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 논란이 또다시 점화되며 ‘친노 배제론’이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그러나 야권 내에서 통합 등 정계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양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내부 전열을 정비한 뒤 이합집산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전대 과정에서 통합을 비롯한 야권재편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창당 승부수 적중…대권가도 ‘날개’ 달았다

“변화 열망 담아내는 대변자로 일신 또 일신…정치와 국민의 삶 바꾸겠다”

국민의당은 14일 4·13 총선에서 38석을 얻으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것을 ‘녹색혁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 정치혁신의 각오를 다졌다. 제3당으로서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는 동시에 협력도 마다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원내질서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지난해 12월13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이후 딱 4개월 만에 신당 창당 승부수가 적중하면서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서 입지에 날개를 달게 됐다. 특히 당을 최대 위기로 몰아넣은 야권통합·연대 논란 때는 천정배 공동대표와 김한길 전 상임 공동위원장 등 정치 경험이 많은 ‘고수’들과 정면으로 맞서 연대불가론을 관철시켰고, 투표를 통해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받으면서 정치적 경험과 리더십을 상당 부분 쌓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총선 전 당을 뒤흔들었던 야권통합론이나 상당수 새누리당 지지층을 흡수하면서 당의 확장성을 검증받았다는 분석은 있지만, 반대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지지층을 유지할 수 있는 정체성 확립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대표는 이날 마포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선거를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면서 변화의 열망을 대변하기 위해 새로워지겠다고 다짐했다. 안 대표는 또 “저희가 아직 부족하지만 더 분발하겠다. 국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는 진정한 대변자로 일신(日新) 또 일신해가겠다”며 “정치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 20대 국회를 제대로 일하는 국회로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꼭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4·13 공약평가 이행추진 특별위원회와 미래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이어 “저희 국민의당부터 총선공약이행점검단을 설치해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돈 공동 선대위원장은 “국민 여러분, 특히 호남 유권자들께 감사드린다. 정당 투표에서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신 유권자께도 감사드린다”며 “구태정치와 결별하고 새 정치를 하라는 엄숙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임내현 선대위 상황본부장은 “보수와 진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당의 역할을 함으로써 국회를 발전시키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권교체의 기초를 마련하라는 지엄한 명령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기 비대위 곧 출범…더민주 ‘김종인 체제’ 굳히나

“호남 참패는 인과응보…최적의 대선후보 만들어 정권교체 매진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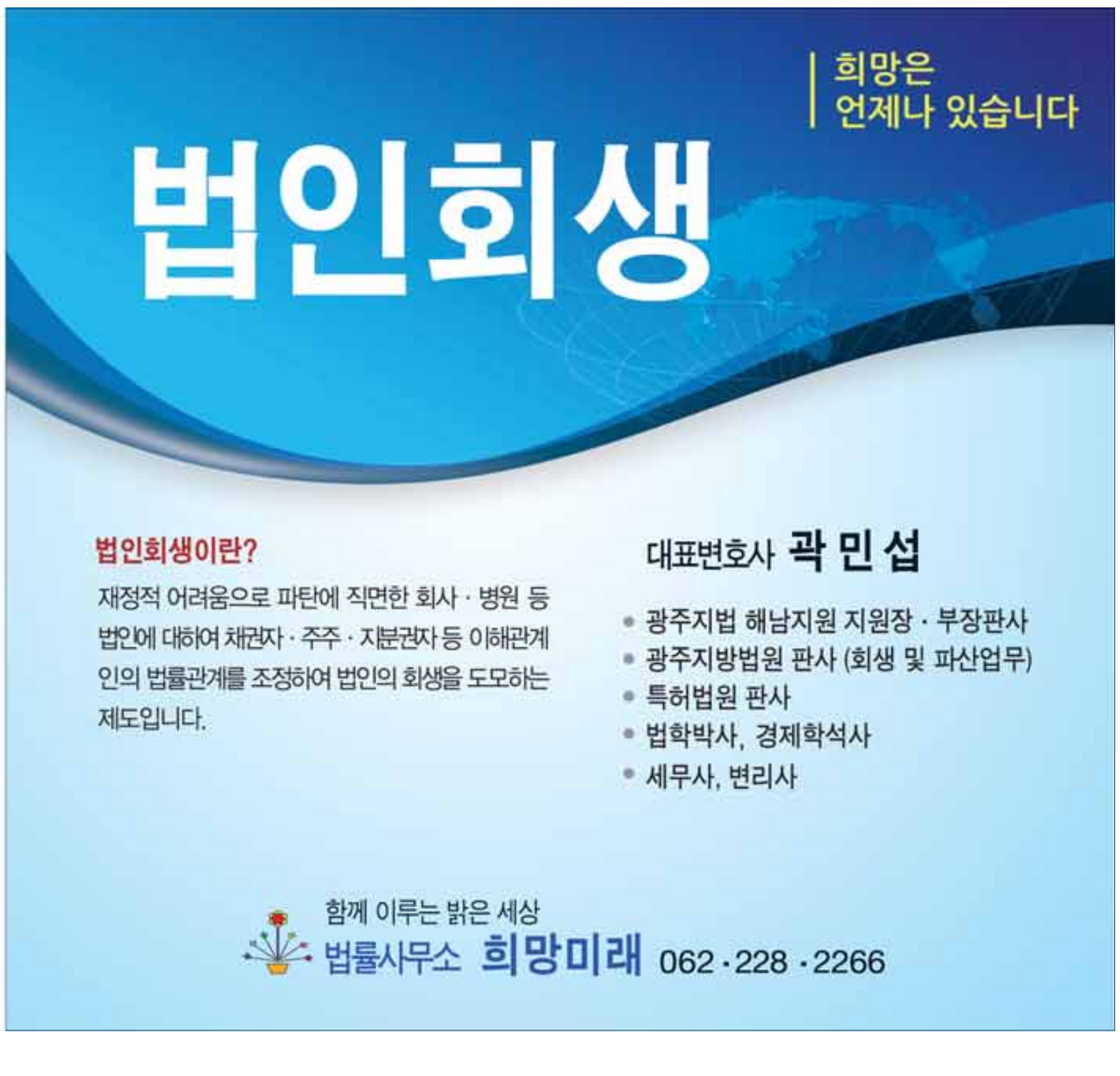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에 등극하면서 ‘셀프 비례대표 공천’ 파동 등으로 크게 위축된 김종인 대표의 당내 입지가 다시 강화됐다.

김 대표는 총선 승리를 토대로 당내 기반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장 비례대표 5선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20대 국회에 진입한 김 대표는 차기 당권의 향배를 가를 전당대회 준비를 해나가면서 당내 목소리를 키워갈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김 대표는 조만간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대위원들을 임명, 2기 비대위를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당내 친정체제를 구축, 내부 장악력 및 자체 세력 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전략적 제휴’ 관계 속에 그동안 침묵을 지켜온 친노·친문 진영과의 갈등이 본격화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김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실패 책임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총선의 가장 큰 의미는 새누리당 과반의석의 붕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민심의 무서움을 깨닫는다”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투표로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총알보다 강한 투표의 힘”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남 28석 중 3석만 얻는 참패를 거둔 것에 대해서는 “인과응보다. 항상 실망만을 드렸는데 의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더민주의 잘못에 회초리를 들어주신 호남의 민심을 잘 받아 안겠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몸을 낮췄다. 또 “더민주를 수권정당으로 만들고 최적의 대선후보를 만들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지도체제를 누가 맡을 것이냐는 논의가 많이 될 것”이라고 비켜 갔으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해 너무 확정을 하면 뒷말이 따르기 때문에 단정은 안하려 한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임동욱기자 tuim@

패장의 쓸쓸한 뒷모습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선대위에서 김 대표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